

# 양돈인 부인회를 조직하자



방 서 선  
(본회 양평지부 부인회장)

생각지도 않았던 이번 원고 청탁을 받고 몹시 당황했다. 50여년동안 가정주부로서만 생활해 왔기에 가계부 쓰는 것 외에는 펜을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막상 펜을 들어 쓰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글쎄, 우리 부인회(대한양돈협회 양평지부 부인회) 모임을 만들 때만 해도 굳이 필요성을 생각지는 않았었다. 나 자신 양돈업을 시작하여 2년여 동안 직접 삼질을 하며 양돈을 하다 보니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 하던 때에 양평에서 양돈업을 하는 집의 부인들도 직접 삼을 들고 고생한다기에 한번쯤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낯선 곳이었기에 어떻게 만남을 가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대한양돈협회 양평지부 부회장님께 부탁을 드렸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83년 8월 양평지부에서 야유회를 하루 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번 한 번만 부부동반 해주십사하고 다시 부회장님께 간청을 드렸다. 그랬더니 회장님과 의논 끝에 승락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몇 분 안나오실 거라는 거였다. 그러나 나는 다들 나오실 거라고 장담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야유회 당일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부부동반으로 참석해서 매우 반갑고 기뻐했다. 서로 고생하는 부인들끼리 한 번이라도 만나 얼굴도 익히고, 서로 위로도 하며, 머리를 식혀 보자는 뜻에서였다. 그날 부인들은 너무도 밝은 모습이었고 서로 손을 맞잡고 반가와 하였다. 그 모습을 보며 이번 만남을 추천하길 정말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부인들끼리 자주 만나자는 뜻을 같이 하게 되어 그해 시월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모임을 조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회원 중에 슬픈 일, 기쁜 일이 생기면 다같이 슬퍼해 주고 기뻐해 주며 서로 굳게 손을 맞잡게 되었다. 그냥 모이는 것은 무의미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빠짐없이 모이

기 위해서 회비를 내기로 하였다. 일만 오천원씩 걷어, 오천원은 회비로 하고 만원은 기념품(금 2돈중)을 만들어 차례로 한 사람씩 나눠 주기로 하였다. 모이는 날을 정할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남자 회원들 월례회날로 하였다. 꼭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여 부부가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 이해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임때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거의 양돈에 대한 얘기였고 우리 부인들이 양돈을 더욱 열심히 하려면 수익성을 생각해야겠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부인들이 질병치료, 백신접종, 전염병 예방, 사양관리 등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약품세미나가 있다가에 우리 총무(이시찬씨)와 들어서 정도삼회장님께 부탁을 드려 쾌히 승락을 받고 다 같이 세미나장으로 갔다. 세미나가 시작되자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하는 부인들의 열성에 정말 놀라면서 부인회를 조직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이후 약품, 사료회사에서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정회장은 우리 부인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부인들은 양돈인 부인답게 열심히

배우며 사양관리에 힘쓰고 있고, 양평 양돈인 부부는 단합이 잘 되어 야유회나 여행때마다 꼭 부부동반해 주시고 우리 부인회에서는 경비절약을 위해 어디엘 가나 우리 손으로 정성껏 식사준비를 하여 보답한다.

부인회가 생긴 후부터는 남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부인회를 잘 도와 주셔서 우리 양평 지회는 서로 도움받고 도움주며 무척 단결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회원 두 명이 더 늘고 우리는 3백만원 짜리 적금을 시작하였다. 1986년 1월 양평지부 사무실을 이전할 때에 우리 부인회에서 전세금의 일부(50만원)나마 내놓을 수 있었고, 사무실 한 쪽을 부인회에서 쓰게 되었다. 사무실까지 갖춘 우리 부인들은 더욱 떳떳할 수 있었다. 그 다음해 1987년 5월 적금을 타게 되어 모아둔 회비와 합하여 5백여만원이 되었고, 의논 끝에 나누기로 하였으며, 양돈인 부인회원답게 보람있게 쓰자고 하였다. 그리고 6월부터 새로운 적금을 시작하였다. 우리 부인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불평없이 돈사에서 삼질해 온 양돈부인회답게 열심히들 보람있게 살아왔다. 물론 우리 부인회가 4년여 동안 변함없이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부회장과 총무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하며, 또한 양돈협회 남자 회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지면을 빌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부인회원들도 남편들한테 한 치 부끄럼없이 행동해 왔고 우리들은 항상 한 가정의 주부이자 어머니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돈인 부인회원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사용해 왔다. 이제 와서 조용히 생각하면 부인회 조직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런데 작년부터 양돈업자들이 제일 무서워 하고 싫어 하는 불황이 오기 시작하였다. 우리 부인들은 만나면 「오늘의 시세는?」하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럽게 묻게 되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라도 잘 극복해야 할텐데' 하며 여러가지로 궁리하여 보았다. 이럴 때 일수록 생산에도 신경써야겠지만 생산한 우리들이 소비 촉진을 위해 힘을 쓰고 앞장서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양돈인 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육을 많이 애용하며 소비를 권장해야 하겠다. 지금이 양돈인 부인회의 힘이 더욱 필요할 때라 여겨진다.

우리 모든 가정은 어머니들의 손에서 가족들의 영양관리

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 양돈인들은 돈육의 영양과 다양한 조리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홍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곳 양평지부 양돈인 부인회에서는 머지 않아 소비촉진을 위한 요리강습회 및 영양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한다. 전국적으로 양돈부인회가 결성되어 소비 촉진에 참여한다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우리 부인회가 대한양돈협회 중앙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첫째는 대기업체의 육가공 독점을 방지하고 육가공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대기업체는 자체내의 육가공공장을 가지고 있고 양돈업을 겸하고 있기에 영세양돈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돈육 수출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양돈인 부인회의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돈육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와 소비자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의 로비 활동 등을 추진하여, 쇠고기의 2배 이상의 경제성을 갖고 있고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인 돈육의 이용을 증대시켜 국민영양의 향상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 \*